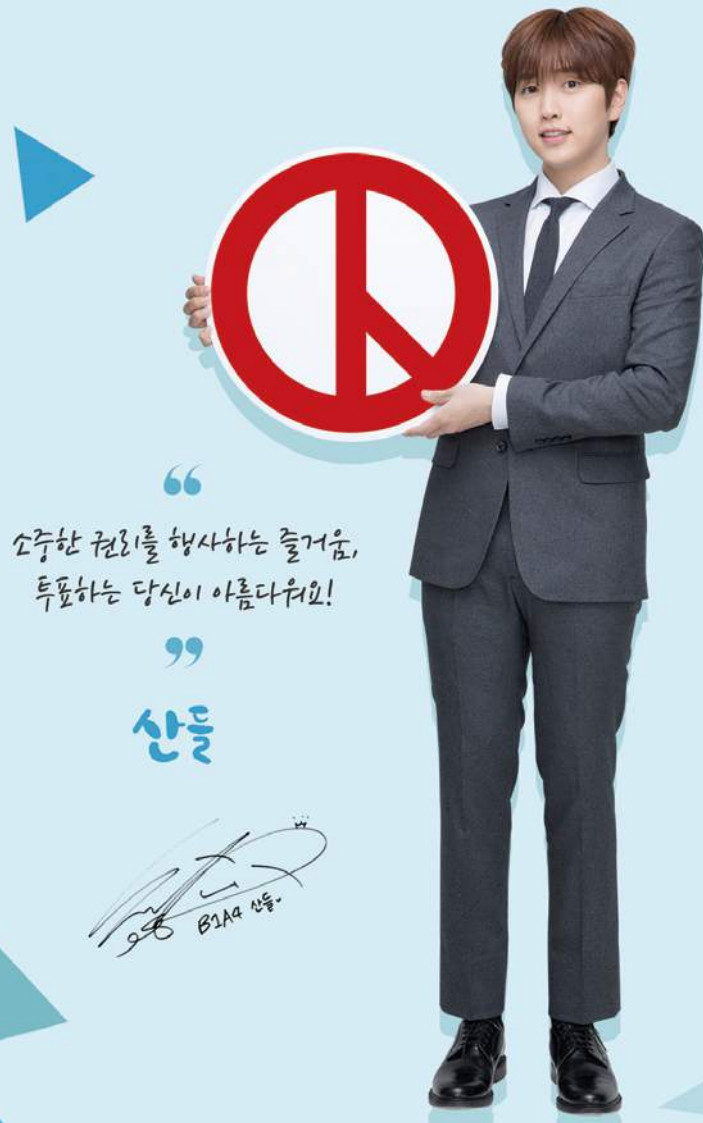




SNS 매거진 No.20
2017. 대선특집

Beautiful  day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정말 기쁘고 떨리네요. 책임감이 들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권리를 선거를 통해 활짝 꽃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선거, 꽃길 걷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오랜 인연이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예홍보대사로 오래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나 중요한 선거인만큼,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이 정책과 공약에 투표하는 것,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서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선거도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그 문화나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국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홍보대사로서 제 목표입니다.



아름다운 선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이 행복한 선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선거 아닐까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해요”

정애리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윤주상

Beautifulday 대선평집 2017 CONTENTS

02 COVER STORY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대사 6인6색
파워인터뷰

06 특별기고

투표참여가 내 가족의 미래다

08 특별기고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다

10 웹툰

사랑한다면 제.대.로 투표하세요!

12 특별기고

투표, 삶의 의미를 표명하는 발언

24 명작 속 정치⑧
아이웨이웨이 나무26 웹툰
스스로28 선거, 심장어택④
재외선거의 나라, 한국과의 인연 - 호주30 A-WEB⑨
제5차 집행이사회 개최32 선거TIP
한 번에 알아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34 인포그래픽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절차 방법36 카드뉴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37 댓글을 만나다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SNS MAGAZINE
No.20 대선특집

표지모델 | 산들(가수 B1A4)

발행일 | 2017. 04. 14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기획 | 미디어과

구독문의 | 02-507-4351

ahj0824@korea.kr

Beautiful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autifulday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볼만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14 영화 속 선거⑧

영화 <히든 피겨스 (Hidden Figures, 2016)>
민주주의의 완성에는 과학의 심장이 필요하다

16 딸바보가 그랬어

당신의 대답

18 파워인터뷰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터뷰

22 역사 속 민주주의⑧

587년 전 세종이 국민투표를
실시한 까닭은?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정애리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설렙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먼저 실천하는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애리씨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거란
어떤 것일까요?**



정애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행복한 미래를 선거로 닦아 놓을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저만의 아름다운 선거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선거'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선정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윤주상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유권자로서의 책임 또한 큰데요, 희망과 공정 그리고 화합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이번 선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홍보대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서 활동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윤주상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축제로, 아름다운 선거로 승화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투표참여가 내 가족의 미래다

수 개월 전 마이리틀텔레비전(약칭 마리텔)이란 TV 프로그램에 저희 부부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송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입니다. 마리텔은 주말 저녁 인터넷으로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의 투표로 인기순위가 결정됩니다. 웬만큼 입담 좋은 방송인이나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아이들도 수모를 겪는 일이 허다해 ‘연예인들의 무덤’이란 악명까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출연 제안이 왔을 때 군에 있는 두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말이 없는 큰 아들은 “엄마, 거긴 유머러스해야 해요”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감정표현이 풍부한 둘째 아들은 “마리텔에서 왜 엄마, 아빠를 나오라고 할까요?”라며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젊은 네티즌들의 평가에서 채팅창에 “노잼(재미없다란 뜻의 유행어)” 혹은 “핵노잼(매우 재미없다란 뜻의 유행어)”이란 말이 달리면 엄청 부끄러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 딱딱하고 재미없는 의학정보를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알려보자는 취지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 도시락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편의점에서 시판중인 여러 도시락의 영양분석표를 조사하고 주말이면 여기저기 편의점을 다니며 직접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을 지칭) 젊은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해야 하는지 마리텔에서 소개했습니다. 마리텔은 기본적인 구성안 이외에 사전대본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상 못한 실수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방송 중 남편이 전자레인지 잘못 돌려 뚜껑이 터지면서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불상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방송 초반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4등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단숨에 1위로 올랐습니다. 마리텔이 방영된 이후 전문가 가운데 5주 연속 1등을 한 것은 저희 부부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텔 이야기는 자랑을 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참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몸소 경험했다는 말을 하고 싶



정치도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국민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은 것입니다. 마리텔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없습니다. 순위를 방송국 간부나 제작자가 아니라 오직 시청자들이, 그것도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는 인위적 조작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이상 참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평가과정이 투명하니 결과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티즌들은 3시간 동안 마리텔을 시청하면서 그 사람의 말과 표정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를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고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지 지켜봅니다.

투표로 선택하는 가족의 행복과 미래

투표를 통한 참여는 순위를 매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참가자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시청자들에게 칭찬받고 시청자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야 결과의 정통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분열되어 있을수록 압도적인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마리텔이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투표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비롯한 마리텔 후보들은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송을 진행할수록 사람들의 응원에 신이 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리텔 때문에 한동안 끼니를 잊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아들과 해변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도 마리텔 원고를 고민한 탓에 마지막 날이 돼서야 겨우 해변에 발을 담그고 돌아왔을 정도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부부의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의학정보를 말할 때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했습니다.

정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국민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난 세월 국가를 위해 누가 진정한 노력을 해왔고 누가 능력 있는, 성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평가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이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진정 경험하고 싶습니다.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남과 여, 청년과 노인 구분 없이 모두 대한민국의 진정한 유권자로 함께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내 가족의 행복과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올 5월 9일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㉞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 여에스터<의사>
가정의학 전문의, 서울의대 예방의학박사
(주) 에스터포플러 대표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다

2013년, 대학생 시절의 일이다. 당시의 나는 통학을 하던 거리가 너무 멀었고, 학교 근처로 자취방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요즘 같은 전세난은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 포함 부동산 20곳, 집만 40여 개 중에서 고민하던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선택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루하루, 입주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설레기 시작했다. 서울 하늘 아래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 공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싶었다. 소박하지만 홈 카페 같은 공간도 있어서 공부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지낼 수 있는, 그야말로 작지만 알찬 공간이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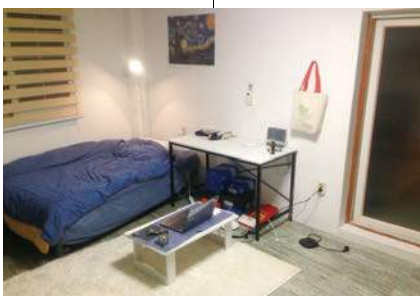
그때부터 자료들을 찾기 시작해 인터넷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서적까지 자취방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하얀색 바탕에 고풍스러운 의자 혹은 세련미 넘치는 소품들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마음에 계약한 집에 들어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다. 바닥재는 괜찮았지만 벽지는 맘에 들지 않아 도배를 위해 집 근처로 갔더니, 7평 남짓한 공간 도배를 하는데 15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혹시라도 도배지 한 롤 정도 가격

셀프인테리어



Before



After

얼마 하냐고 물었더니 5,500원이었다. 무려 아파트 32평 기준 작은방 한쪽 벽면을 도배할 수 있는 양이었다.

‘혹시 내가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디어가 번뜩인 나는 혹시 직접 도배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사장님은 젊은 친구가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라며 방법을 천천히 알려주시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벽에 스스로 도배를 하고, 원하는 느낌이 나지 않아 또 페인트 가게를 둘러 방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조명가게에서 조명교체 방법 등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 방법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나처럼 주머니 사정은 가벼웠지만 꿈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인테리어를 했던 경험들을 블로그 콘텐츠로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면 꽤나 생소하기도 했고, 특히나 자취방과 관련된 정보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인지 첫 셀프 인테리어 게시물에 포털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올라 하루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갔다. 특별히 실내디자인을 공부해본 적 없던 내가 머리 속으로 상상했던 그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경험이 정말 좋았다.

뿐만 아니라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

가 일종의 재능 기부 형식인 ‘오지랖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공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일 년 정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 출간 제안을 받고 첫 책을 내고, 곧 두 번째 책이 나왔다. 책이 나오면서 MBC ‘나 혼자 산다’를 시작으로 JTBC ‘현집줄게 새집다오’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방송을, 호서직업전문학교 인테리어학과 교수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월세든 전세든, 예전에는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 인테리어가 그저 낭비라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방치했던 사람들이, 내가 했던 방식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공간을 꾸미고 난 뒤에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감사 편지까지 보내주었다.

평범했던 대학생이 지금의 제이슨이 되기까지 돌이켜보면 이 모든 순간들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공간은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준다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믿는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투표도 마찬가지다. 투표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공간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야말로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살아갈 공간을 내가 스스로 계획하며 만들어가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이자 크나큰 설렘과 기쁨이며 내 공간과 내 인생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인 것처럼, 투표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



이다. 내 손으로 집을 바꾸고, 인생을 바꿨듯, 투표 역시 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내 손에서 시작될 투표를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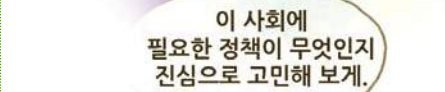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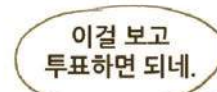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제이슨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 인테리어과 겸임교수

🏠 사랑한다면 체대로 투표하세요!

글·그림 김달남





미술은 사물과 세계를 보는 눈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은 우선 눈에 보이는 세계와 사물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 만큼, 현실과 대등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때 그림은 결국 있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일이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똑같이 다시 보여주는 일이 미술의 핵심적인 일일까? 그것이 그림의 전부일까? 그러면 저마다 다른 화가들은 어떤 존재일까?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다들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는 그림이 과연 좋은 그림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일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시선으로,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투표, 삶의 의지를 표명하는 발언

사물과 세계를 보는 거울

서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상주의 이후 전개되는 현대 미술은 이전에 그러지던 사실주의, 이른바 재현주의를 반성하면서 발전해왔다. 그 이전에는 오로지 그림은 화가가 바라보는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서양미술에서는 그러한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발전되었다. 대표적으로 원근법이 그 예이다. 명암법, 해부학적 지식, 유채물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이 존재했지만 그려진 그림은 거의 유사한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림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을 획일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동일한 방법으로만 그리게 하는 일이 된다. 그것은 한 개인의 시각, 창의성과 상상력을 억압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 똑같

은 대상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작가들마다의 능력과 편차에 따라 그림은 매번 달라져야 한다. 제대로 된 예술은 획일화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저마다 개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영화를 감상하고 미술작품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와 다른 이가 지니고 있는 감정, 삶의 체험, 감각, 감수성,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체코의 저명한 소설가 카프카가 “나를 극복하는 일은 다른 이의 예술작품에서 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비로소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술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이처럼 나와 다른 이의 사유, 감각, 감수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술작품이란 결국 작가들마다 사물과 세계를 보는 다양한 관점, 감각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보는 한정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접한다.

선거로 말하는 권리와 의무

하지만 사실 애초에 ‘미술’은 없었다. 미술은 근대에 생긴 새로운 개념이다. 근대 이전에도 물론 이미지는 존재했지만 한결같이 신화나 종교, 특정 지배계급의 권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른바 주술적 물건으로서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19세기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이미지는 개인의 무한한 자유와 신념을 선택하고 표방하는 일이 되었다. 권력과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미지는 ‘미술’이 되어 작가의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일과 연관되거나 그가 바라보는 세계와 사물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현대미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오늘날 미술이란 행위는 작가가 이해하는 ‘미술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나가듯이



미술이 변해온 것처럼 현대사회 또한 바뀌었다. 특정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선거를 통해 지배자를 선출하고 일시적인 권력을 위임한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미술 작업 역시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체제 아래서 한 개인의 삶이 그렇듯이 미술 역시 그런 운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미술이 변해온 것처럼 현대사회 또한 바뀌었다. 전통 사회처럼 특정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고 지배자를 선출하며 그에게 권력을 일시적으로 위임한다.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자신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라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지를, 꿈을, 이상을 표명하고 선택하는 의미심장한 일인 것이다.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일은 자신의 세계관과 정치관을 표명하는 유일한 일이고 자신의 원하는 세계와 현실을 그려보고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소중한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㉔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 박영택 <경기대교수, 미술평론가>
경기대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금호 미술관 큐레이터
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조선일보 신춘 문예 미술 평론 심사위원



지난 2월 27일, 제8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배우가 아닌 사람이 배우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의 이름은 캐서린 고블 존슨.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일했던 천재 수학자다. 흑인이고 여성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히든 피겨스>의 주연배우들과 함께 오스카의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의 환호에 캐서린 존슨은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

올해의 오스카 시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그리고 그의 당선과 함께 시작된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범죄들에 대한 비판으로 관철됐다. 흑인 성소수자 소년의 가슴 저릿한 성장담을 그린 영화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았고, <펜스>의 비올라 데이비스가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그는 오스카와 에미상, 토니상을 모두 받은 첫 번째 흑인 배우가 되었다. 단지 수상의 결과만이 아니다. 사회를 맡은 지미 키멜은 할리우드를 관광하던 외국인들을 시상식장으로 초청해 배우들과 사진을 찍고 포옹을 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들갑’과 달리 미국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더 아름답고 즐거운 나라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깜짝쇼였다.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 <히든 피겨스>가 실제 주인공을 무대에 올린 것 또한 매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백인들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걸 말하고 있었다. 미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 그들이 가진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히든 피겨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포함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위대한 나라의 완성에는 과학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화 <히든 피겨스 (Hidden Figures, 2016)> 민주주의의 완성에는 과학의 심장이 필요하다



흑인, 기적을 만든다

<히든 피겨스>의 첫 시작은 어느 한적한 도로다. 자동차 한 대가 길에 서 있고, 이 차로 출근을 해야하는 세 명의 흑인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NASA의 계산원이 다. NASA는 수많은 여성을 고용해 그들에게 필요한 수학 계산을 맡기고 있었다. 잠시 후,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백인 경찰이 다가온다.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밝히자, 경찰은 매우 흥미롭다는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여성이, 그것도 흑인이 모든 미국인의 꿈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이다. 이 경찰은 친절하게도 직접 그들을 호위해준다. 경찰차를 뒤따르며 운전하던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 1961년에 백인 경찰을 흑인 여자 셋이 추격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기적이지!”

실제 이들이 미국의 우주산업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미국 역사상 첫 유인우주선 궤도를 계산한 천재 수학자 캐서린 존슨, 또 한 명은 NASA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도로시 본이며 또 다른 한 명은 NASA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되는 메리 잭슨이다. <히든 피겨스>는 이들이 NASA의 영웅이 되기 전 어떤 난관을 통과했는지에 대해 그리는 영화다. NASA 안에서 이들은 어디까지나 ‘흑인’이었다. 백인들과 함께 일하게 됐지만, 영화 속 캐서린 존슨에 대한 차별이 끝난 건 아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고충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일에 매진한다. 결국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그녀에게 왜 당신은 내가 찾을 때마다 없냐고 다그친다. 10여 분을 뛰어가야 하는 흑인 전용 화장실을 다녀온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캐서린 존슨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여기는 흑인 화장실이 없어요. 먼 거리를 볼 일 보러 걸어야 해요! 내가 커피포트에 손대는 건 전부 꺼려하고요! 그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몇 차례 화장실 가는 걸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 중요하다. 캐서린의 이야기를 들은 책임자는 직접 흑인 전용 화장실의 표지판을 부숴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곳에 흑인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백인용 화장실도 없습니다. 단지 평범한 화장실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급하면 사무실 가까운 곳으로 가요. NASA에서는 화장실 구분 같은 건 없습니다.”

과학에는 정치도, 인종도, 성별도 없다

1960년대의 미국 사회에서는 캐서린 존슨처럼 능력 있는 흑인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곳에서든 말이다. 영화 속 이 책임자가 다른 백인들에 비해 좀 더 흑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더 잘할 사람을 찾았을 것이고, 그 중에 흑인 여성이 있었던 것이고, 기존의 시스템 상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100% 발휘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낡은 시스템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권에는 ‘먼저’가 없고, ‘나중’에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다. 그들 중 누구라도 배제한다면, 민주주의의 완성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정치도, 인종도, 성별도 없다. 단지 과학이 있을 뿐이다. “NASA에서는 화장실 구분같은 건 없다”는 말은 곧 ‘NASA’밖에서는 있을지언정, 과학을 논하는 이곳에서는 없다는 이야기다. 영화 <마션>을 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마크 와트니를 구하기 위해 준비한 우주선이 망가진 후, 망연자실한 NASA를 위해 중국의 우주과학자들이 나서는 장면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야.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해.” 과학의 심장은 국제관계 외 외교문제의 이해득실도 먼저 가늠하지 않는다.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고, 캐서린 존슨이 NASA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인권은 동등하다

<히든 피겨스>를 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에게도 과학의 심장이 있기를 바라게 됐다.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한국은 점점 다인종 국가로 변신 중이고,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는 중이다. 또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라면 한국 국적을 가진 성소수자와 다문화 가정의 사람, 장애인들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인권에는 ‘먼저’가 없고, ‘나중’에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다. 그들 중 누구라도 배제한다면, 민주주의의 완성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의 심장만으로 선거를 대한다면, 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가 먼저 과학의 심장을 가져도 좋겠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한 명의 대통령이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기에는 이 사회에 아직 숨겨진 숫자들(Hidden figures)이 너무 많다. 정치의 심장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숫자들이다. ㉔

글 :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딸바보 아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당신의 대답

평상시에 국가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1



어린이집을 놀리고 싶은지



최저임금을 물리고 싶은지



오르는 전세를 잡아야 하는지

2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많은 결정을 내린다.

3

그러나 단 하루
국가가 당신에게
물어보는 날이 있다



4

그 날 찍은
당신의 대답이

5



어린이집의 숫자가



최저임금의 액수가



전세금의 상승률이

6

5년 간의
국가의 방향이 된다

7

당신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당신의 삶 속에서 늘리고 싶었던 게 원지
혹은 없애고 싶었던 게 원지



9

4년 만에 다시
국가가 질문한다

11



당신의 대답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함께 국가의 방향을 결정해주세요]

12



‘딸바보가 그랬어’가
궁금해요!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세상 그리기,
‘딸바보가 그랬어’ 철 없는 남편에서
딸바보 아빠가 되기까지! 인생에서
가장 친란했던 4년간의 기록을 남긴
육아 에세이로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등의 SNS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작업물을 모아 발행한 단행본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걸 외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10



찍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8



13

선거는 화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국정치학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터뷰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14:00

참석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광일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안경모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간사,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서정건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최현진 한국정치학회 연구간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구본상 연세대 통일연구원

사무총장으로서의 비전과 중점사업

한국정치학회 작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 중점사업이 있으신가요.

김대년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정관리가 생명이자 기관의 존립 의무입니다. 우리 선관위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 모드를 실현해야 하며, 특히 적극적 행정을 통한 선거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비전으로 삼은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3.0시대 구현”입니다. 선관위 1.0시대가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라면, 2.0시대는 선거법 위반 단속을 통한 선거질서 확립이고, 3.0시대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선관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사회 갈등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9대 대선 중점 관리 분야

한국정치학회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남았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김대년 사무총장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5월 9일 본선거가 실시되고 5월 10일 당선인이 결정되어 임기 개시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대선과 12월 대선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지만,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투표소와 개표소 등 시설 계약을 미리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당장 5월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되는데 통신망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선거인만큼 성공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

한국정치학회 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년 사무총장 가짜뉴스는 외견상 뉴스형태를 가지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뉴스형태를 띠지 않고 유포되는 SNS 등의 비방, 허위 글은 엄밀히 말해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 왔고, 우리 위원회는 비방·흑색선전 TF팀을 운영하여 숙련된 인력과 장비, 노하우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보자 검증 방안

한국정치학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검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김대년 사무총장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 외에 사회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정책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미비가 문제입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정책 서열화 및 비용추계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의 여러 한계가 있지만 언론·학회·시민단체 등과 정책선거 추진 네트워크 구축 및 후보자토론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리

한국정치학회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기준을 세워 관리하고 있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한 결과입니다. 사전등록제, 가상번호 도입,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안

한국정치학회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의식과 정치참여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김대년 사무총장** 우리 선관위는 주권의식 함양에 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의식을 배우고 길러야 선거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연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와 예산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올해 말 선거연수원이 수원으로 이전되면 학계와 시민사회, 정당과의 연계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터뷰를 정리하며

한국정치학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년 사무총장**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대표자 선출이라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참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㉞

*위 내용은 한국정치학회 소식지 제41권(2017년 3월)에 실린 인터뷰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이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가운데)을 인터뷰하는 모습



“두근두근, 나의 소중한 선택”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진세연

“참여하는 설렘을 함께 느껴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산들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신 있게”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장나라

“투표에 희망을 담아 보세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김연우

“함께 할 수 있어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정애리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윤주상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 5월 4일(목) ~ 5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5월 9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방문하시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7년 전 세종이 국민투표를 실시한 까닭은?



왕으로서 정치가로서 세종(1397~1450, 재위 1418~1450)의 위대함을 부인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를 비롯하여, 백성들을 위한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등의 편찬 사업, 해시계·자격루·측우기 등의 각종 과학 기구들의 발명, 궁중 음악의 완성 등 세종 때의 성과들은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세종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 점에서도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하다. 세종시대 하면 명재상 황희, 허조, 맹사성을 비롯하여, 천재 과학자 장영실, 음악가 박연, 집현전 학자 출신인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6진과 4군을 개척한 김종서, 최윤덕 등 많은 인물이 기억난다. 요즈음으로 치면 세종 관련 연관 검색어에는 시대를 빛낸 인물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역사 최초의 국민투표

여기에 또 하나 세종은 지금부터 587년 전인 1430년(세종 12)에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왕이었다. 1430년 세종은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 시안을 갖고 백성들에게 그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토지 1결당 일정하게 10두의 세금을 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전까지 관리가 직접 논밭을 돌아보면서 농사의 수확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인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을 따르다 보니 관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세금이 들쭉날쭉하게

매겨지고 백성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세종은 공법 시행 이전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427년(세종 9) 세종은 창덕궁 인정전에 나아가서 문과(文科) 책문(策問)의 문제를 출제했다. 책문을 통해 공법에 대한 견해를 묻은 것이다.

세종은 공법 결정 이전에 과거 시험에 공법 관련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공법이 국가 정책의 주요 현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리부터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세종의 면모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공법 결정 이전부터 세종은 신하와 유생들의 의견을 먼저 알아보았고, 예비시험을 거쳤다. 이것도 모자라 세종은 공법 문제는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사안으로 판단하여,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5개월간에 걸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치밀한 성품과 백성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종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에는 “정부·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前衙)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엄(閭閻)의 세민(細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세종실록, 세종 12년 3월 5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어서 1430년 7월 5일의 기록에는, 호조 판서 안순이 아뢰기를, “일찍이 공법의 편의 여부를 가지고 경상도의 수령과 백성들에게 물어본즉, 좋다는 자가 많고, 좋지 않다는 자가 적었사오며, 함길·평안·황해·강원 등 각도에서는 모두들 불가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 드러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백성이 찬성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세종의 선언은 오늘날에도 주는 의미가 크다.

1430년 호조에서는 공법 실시를 둘러싼 국민투표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17만여 명의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9만 8천여 명이 찬성, 7만 4천여 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찬반 상황은 지역별로 세종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국가의 역량이 집중된 사업이었다.

실록에는 각 도별 찬반 상황 외에도 찬성과 반대의 이유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관찰사, 수원부사 등이 1결당 10두로 일괄적으로 정하면 토지의 비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하여 3등급으로 나눌 것을 건의하고 있다. 경상도에서는 경주부윤 조완 등이 1결당 19두의 세법을 정하는 것은 기존의 세법보다 3분의 2가 줄어드는 것임을 지적하고 국가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전라도에서는 대부분 찬성의 입장을 보였지만, 풍년 15두, 중년 10두, 흉년 7두를 거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백성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도 팽팽했지만 국가 시책을 담당할 관리의 반대 역시 적지 않았고, 이들의 반대 의견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세종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반대 의견까지 적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투표의 결과 이후에도 찬반 의견이 워낙 팽팽했고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종은 바로 세법을 확정하지 않고, 다시 면밀한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1436년(세종 18) 6월 15일에는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공법 추진에 들어갔다. 1437년(세종 19) 8월 전라도와 경상도부터 공법의 시범 실시가 이루어졌고, 1441년(세종 23)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444년(세종 26) 공법은 마침내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고, 해



에 따라 풍년과 흉년을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의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였다. 그리고 토지 1결당 20두에서 4두에 이르는 차등 세금이 적용되었다.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14년 만에 드디어 토지의 세법에 대한 공정한 잣대가 마련되었고 이후 조선사회의 기준 세법이 되었다. 농업이 근본 산업이었던 당시 백성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 결정은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세종은 오랜 시간을 두고 신하와 백성들의 충분한 의견을

도별 찬반 상황 (전거: 세종실록 세종 12년(1430년) 8월 10일)

도별	찬성	반대
경기	수령 29명, 품관과 촌민 17,076명	수령 5명, 품관과 촌민 236명
평안도	수령 6명, 품관과 촌민 1,326명	관찰사, 수령 35명, 28,474명
황해도	수령 17명, 품관과 촌민 4,454명	수령 17명, 품관과 촌민 15,671명
충청도	수령 35명, 품관과 촌민 6,982명	수령 26명, 품관과 촌민 14,013명
강원도	수령 5명, 품관과 촌민 939명	수령 10명, 품관과 촌민 6,888명
함길도	수령 3명, 품관과 촌민 75명	관찰사, 수령 14명, 품관과 촌민 7,387명
경상도	수령 55명, 품관과 촌민 36,262명	수령 16명, 품관과 촌민 377명
전라도	수령 42명, 품관과 촌민 29,505명	관찰사, 수령 12명, 품관과 촌민 257명
총계	98,657명	74,149명

수렴한 끝에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흔히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전제 왕권의 시대에 이처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다.

1430년 세종 당시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17만여 명의 참여는 노비나 여성을 제외한 거의 전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요즈음처럼 인터넷이나 전화로 여론조사가 불가했던 그 시절에 수많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투표에 참석하도록 한 점은 매우 눈길을 끈다. 관리들이 집집마다 백성을 찾아가며 의견을 물었을 가능성이 큰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큰 사업이었다. ‘민본’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세종의 강력한 리더십과 관리들의 협력은 587년 전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㉟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 신병주<교수>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사
외교통상부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 위원
남명학 연구원 상임연구위원회 위원

아이웨이웨이



아이웨이웨이는 2017년 현재 가장 뜨거운 작가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끊임 없는 감시와 탄압을 받아온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을 2015년 12월 영국 런던 왕립 예술원의 광장에서 만났다(전시 제목은 작가의 이름을 딴 ‘아이웨이웨이’다. 작가의 명성을 가늠할 수 있다). 아이웨이웨이는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정부로부터 구금된 상태로 지내는 상황에서 이 전시를 준비했다. 구금의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내보냈기 때문이다. 그의 SNS는 그 자체로 하나의 매체이자 무기다. 구금이 아니라도, 그가 이날의 전시를



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렵사리 중국정부로부터 여권을 돌려받았다. 이번에는 영국에 6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기간이 20일로 제한됐다. 영국 언론에서는 비자기간 제한이 그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방문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 뒤 실제로 현재 수상이 된 당시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이 6개월 기간의 비자를 발급하고 작가에게 사과하면서 논란이 수습됐다.

‘나무’라는 상징

작가만큼이나 작품도 사회적 맥락이 짙은 만큼 화제를 몰고 다닌다. 우선 ‘나무’라는 작품을 둘러봤

다. 중국에서 죽은 나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안과 현실의 중간영역을 상징하는 매개물로 신성시된다. 광장 한 가운데 자리잡은 나무 동치들은 흡사 하늘에 제를 올리듯 육중한 몸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왜 하필 나무일까?

사상 최초의 헌재에 의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결정이라는 역사적 국면에 아이웨이웨이의 나무를 떠올린 것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 준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동안 대통령이 없는 권위의 시대를 살아갈 대한민국 공동체의 모습을 그 나무들이 은유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공백을 책임져야하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갈 주권자인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끝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 우리 손으로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닌 듯 중간계의 영역에서 묵묵히 땅에 발을 디딘 나무동치처럼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 우리 손으로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 우리에게 올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어떨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나무’는 새 잎을 틔워낼 것이다.

아이웨이웨이의 ‘나무’는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무 ‘모양’이다. 진짜 나무지만 나무가 아니다. 중국 남부의 산에서 나고 장시성의 한 시장에서 팔린 나무의 일부를 조합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육중한 사이즈의 나무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수많은 개인들을 나무라는 상징으로 묶어내겠다는 듯 묵직하고 웅장했다. 옛 이야기 속에서 마을 초입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하나의 공동체의 운명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등장하듯, 나무는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늘 존재하는 대상이다. 왕립 예술원 광장의 나무들도 그러했다.

작가는 2009년부터 수년 동안 장식조각으로 판매되는 나무 조각들을 사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조립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형 산업용 볼트로 결합돼 쌓아올려진 나무의 인공적 느낌은 기이하다. 높이 7미터의 나무 8그루로 이뤄진 숲은 각각이 나무 형상을 한 인간 모양의 조각상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작가가 제각각의 나무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낸 이유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한 중국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작가의 반응이기도 하다. 그 기괴함에는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다. 동시에 중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작가의 포부가 담겼다. 이 나무숲은 전시 주체가 낸 비용이 아니라 영국에서 자발적인 후원금(약 2억원)으로 작가의 베이징 스튜디오에서 런던 왕립 예술원 앞뜰까지 옮겨졌다는 점도 특이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나무

우리가 60일의 공간 안에 뿔어낼 우리의 욕망은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선거를 향해갈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은 그 욕망에 어떤 미래를 던져 지지를 얻을까. 그리고 그 광장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 나아갈까. 지금은 사라진 옛 고향 마을 어귀에 있던 당산나무를 떠올려 본다. 작가의 나무가 갖고 있는 인공적 기괴함과 또 다른 세월의 더께를 그대로 안고 있는 나무와 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공동체의 한판 국을 말이다. 당산곳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목은 감정을 해소하고 화해의 장이 펼쳐진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참여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용 없이 ‘모두’라는 말만 앞선다면 그야말로 허황된 정치적 숙어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말했듯 “대통령의 성실함이 추상적 어휘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떠올려본다. 인간은 구체적인 나무 한 그루와 나무가 상징하는 추상적인 사고들의 사이에 존재한다. 보다 나은 집단이 되기 위해 인간은 나무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공동체의 “장”을 만들어냈다. 내가 한 겨울 바라본 아이웨이웨이의 나무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다. 봄이 되면 녹색 잎이 새로 나겠지만, 죽은 고목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겨울나무는 우리의 다가올 60일을 닮았다. 아니다. ‘나무’는 부활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 기적을 바라기는 어렵다. 60일 뒤 우리에게 올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어떨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나무’는 새 잎을 틔워낼 것이다. **글 : 하어영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탐사보도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한겨레21 등을 거쳤음. 한국기자상(42회, 43회), 관훈언론상(29회), 민주언론상(20회) 수상. 저서 <은밀한 흐름>(공저)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글·그림 김사언<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아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권리 또한



스스로



잘 살피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전쟁은 국제전이었다. 다양한 나라가 참전했고 각양각색의 무기가 불을 뿜었다. 그 한 예로 한국전쟁은 제트기끼리의 공중전이 벌어진 첫 전쟁이었는데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르는 이 제트 전투기에다가 한국인들은 특이한 별명을 붙였다. ‘이박사 처갓집 비행기’ 또는 ‘호숫기’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오스트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한 적이 없다. 한국 사람들은 프란체스카 여사의 모국과 한국을 도왔던 오스트레일리아를 헛갈렸던 것이다. 대통령 처갓집이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지구상 대륙 가운데 막내, 오세아니아의 태반을 차지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이름은 다소 어처구니없는 호의적 착각 하에 한국인들의 뇌리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이나 유색인종에게 그다지 친절한 나라가 아니었다. 꽤 오랫동안 그랬다.

휴 잭맨,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 <오스트레일리아(2008)>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악명 높은 백호주의(白濠主義- White Australia Policy)와 원주민 아이들의 백인 가족 강제 입양이라는 원주민 동화(라고 쓰고 말살이라고 읽는다) 정책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을 철저히 차단하고 원주민들을 고립, 감소시켰던 호주 정부의 백호주의는 1901년 이민자 제한 정책 수립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유지됐다.

사장되는 재외 한국인의 참정권

한국인으로서 첫 호주 이민의 역사는 뜻밖에도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한 한국인 여성이 시민권을 획득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대구 출신의 1933년생 곽묘임이라는 여성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재일교포였다. 1974년 남베트남이 패망하기 직전, 월남에 파견 나가 있던 기술자 500여 명이 당시 호주 정권이 펼쳤던 비자 간소화 정책에 따라 관광 비자로 대거 입국했고 그 수는 해마다 늘었다. 1976년 사면령과 더불어 영주권 취득과 가족 초청이 가능해졌다. 이후 취업이민이 허용돼 1977년 ‘피혁 제화 기술자’를 비롯한 다섯 가구를 시발로 취업이민도 증가했고 중동 붐 당시 중동으로 몰려갔던 일단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더하여 한국인 남미 이민을 제한하는 5.4 조치 이후 남미 이민 희망자들까지 호주 이민 대열에 가세했다. 1970년대만 해도 손으로 헤아릴 수 있었던 호주 내 한국인 이민의 수는 1980년대 중반에는 1만 명을 넘었고 2017년 현재 15만 명을 넘는다고 하니 그 산전벽해(桑田碧海)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호주 정부의 이민 정책과 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기는 했으나 1970년대 중반 처음으로 이민의 문호를 연 이후 호주는 한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천천지였고 기회의 땅이었다. 특히 1995년 양국 정부 간에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진 뒤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국가다. 2017년 현재 3만 7천 8백 명의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 학생 가운데 2만 4천 명이 호주를 선택하고 있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만하다. 호주 거주 한국인 15만 명 가운데 호주 시민권자는 약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즉 나머지 10만 명은 법적으로 한국인이며 그들의 참정권은 한국에서 인정된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 등록된 재외선거 유권자는 불과 2,933명이었다. 유권자 등록률이 불과 3%인 셈이다. 또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시드니총영사관 1,152명(브리즈번 추가투표소 305명 포함), 멜번분관 349명, 호주대사관 85명으로 1,586명, 투표율 54%에 그쳤다.(Korean Today 2016.8.4) 사실상 투표 참가율은 1.5%인 셈이다. 10만 명이라면 충남 공주나 경남 밀양에 맞먹는 인구다. 한 도시를 구성할만한 한국인들의 참정권이 분주한 타향살이의 고단함 또는 정치적 무관심에 의해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이민의 시대 이전 한국인으로서 호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1926년 도산 안창호도 미국에 가는 여정에 호주에 잠깐 체류한 적이 있었지만 그에 앞서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우사 김규식도 호주에 발을 디뎠다. 호주 방문 이후 김규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 중국가고도 서북간도입니까. 땅 파는 농업 밖에 모르지요. 목축같은 것도 여간 이익이 남는 게 아닙니다. 영국인들은 호주에 와서 목축을 하는데 왜 우리 조선인들은 황하를 못 건너고 양자강을 못 넘는단 말ियो.” (동아일보 1925년 2월 10일자)

‘늘 하던 대로’ 해 온 것밖에 할 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에 만족하던 조선인의 고루함을 극복하여 보다 넓은 시선으로 해외 사례를 보라는 일갈이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김규식이 호주 수상 윌리엄 휴즈까지 만나 조선의 독립을 도와 줄 것을 탄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 애타는 심경을 생각해서라도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권자들이 정치적 격동기를 넘어 운명의 전환을 맞고 있는 조국의 정치적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㉞

글 : 하산자(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이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역사 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도시를 구성할만한 한국인의 참정권이 분주한 타향살이의 고단함 또는 정치적 무관심에 의해 사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격동기를 넘어 운명의 전환을 맞고 있는 조국의 정치적 현실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재외선거의 나라, 한국과의 인연-호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제5차 집행이사회 개최

양성 넘치는 A-WEB 집행이사회

다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2013년 창설된 A-WEB은 매년 사업성과와 향후 활동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2개국 106개 회원 선거기관들을 대표하는 집행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례 회의를 가진다.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차가 된 올해는 2월 28일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제5차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였다.

A-WEB 집행이사회는 A-WEB의 106개의 회원 기관 만큼이나 그 구성도 다양하다.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의장은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차기 의장이 될 현 부의장은 루마니아 선거청의 대표가 맡고 있다. 집행이사회는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케냐, 키르기스공화국, 인도, 몰도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거관리기관으로, 감사위원회는 카메룬, 에콰도르, 코소보의 선거관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는 기니, 포르투갈, 튀니지의 선거위원회에서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여 한결 더 풍성했다. 각 대륙을 대표해 한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과 각 국의 국기로 가득 찬 엘살바도르 외교부 청사 4층 회의실에 홀리우 올리보 최고 선거재판소 위원장의 인사말이 울려 퍼졌다. “부에노스 디아스! 먼 길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준 집행이사들에게도,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많지 않은 엘살바도르에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실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누구보다 애써 준 올리보 위원장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합리적인 힘

집행이사들은 A-WEB이 2016년 한 해 동안 펼친 왕성한 활동내용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창립멤버들은 A-WEB이 선거분야 UN과 같은 협의체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는 언급을 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애정 담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현 사무총장의 연임안이 승인되었고, 올해 9월 초에 루마니아에서 열릴 총회에 앞서 차기 부의장 후보 선정 및 신규 집행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상대방의 의사를 경청하는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소통의 장이었다. 기니 선거위원회가 차기 집행이사회 개최 기관으로 선정되며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다섯 시간 가장 지속된 회의가 끝이 났다.

집행이사회를 A-WEB 사무처 소재지인 대한민국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한다면 준비 측면에서는 분명 더 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마다 A-WEB 집행이사회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준비에 필요한 수고를 마다않고 회의 개최에 힘써주는 회원기관들이 있기에 A-WEB이 가진 소중한 다양성과 협력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다문화주의와 세계화의 대세 속에 세계 시민적 통합과 개별 국가적 다원성 간의 적절한 균형 잡기가 중요한 담론으로 대두되었다.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

를 위하여 설립된 A-WEB의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이 그 어떤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한 발 더 나아가, A-WEB 집행이사회가 바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보편 윤리와 가치에 근거한 다원주의 속 공동체성 추구의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한 모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란 다양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던가.

겨우내 기다리던 봄이 온다. 내년 이맘때쯤 기니에서 열릴 제6차 집행이사회에는 한 뼘 더 성장한 A-WEB의 활발한 활동내용이 보고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A-WEB과 함께 A-WEB 회원국들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듯 찬란하게 빛나길 기대한다. ㉞



A-WEB의 의사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편 윤리와 가치에 근거한 다원주의 속 공동체성 추구의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한 모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문주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 선관위는 어떻게 선거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1. 선거일은 5월 9일, 사전투표기간은 5월 4일, 5일입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용산역에도 설치)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5월 4일, 5일 오전 6시 ~ 오후 6시	5월 9일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알아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2.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거소투표도 가능합니다.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한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여행자·상사원 등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고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소는 총 204곳(175개 공관, 25개의 공관 외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등 4개 파병부대)에 설치됩니다.

선상투표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화물선·여객선, 원양어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를 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 정보·정책이 담긴 선거공보를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학력·재산·전과·병역·체납, 공약 등 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책자형, 전단형 선거공보 2종류로 작성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는 4월 2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는 4월 29일까지 투표소 약도가 인쇄된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로 발송합니다. 후보자의 10대 공약 및 선거공보·공약서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재산·전과 등의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준비에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3월 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와 정책선거 추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투·개표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선거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개표결과를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의 개표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참관단을 운영하여 개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공개합니다. ▲ 한국선거방송으로 선거일 투·개표 모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 일반 유권자의 개표사무원 참여, ▲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배우자도 개표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㉔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공약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시간 5월 4일(목)~5월 5일(금)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5월 9일 대통령선거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투표 절차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0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합니다.

02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0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0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05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 투표에 관한 유의사항



투표 안내문 확인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엄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해당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금지



CARD NEWS로 보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선거를 앞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4~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선거를 앞둔 고용주라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부터
선거일 전 3일(5.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2



3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이젠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행하세요!

나, 정말
투표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천년여왕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투표권리와
행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곧 미래의 주인이니까요 ^^



그냥

몸이나 교통 등 이동에 불편한 경우가
아니면 관심있거나 인지도 높은 선거의
투표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관심이 달한
선거에도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식

선조들이 어렵게 찾은
투표권을 모든 분들이 소중히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일 연휴가 길어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는데 걱정이네요ㅠㅠ



말괄량이 평

재외선거 제도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에 널리 널리 퍼져서
다들 꼭 투표 하면 좋겠네요~!!



민재맘bin

저희 사촌오빠도
국외부재자 신고해서
투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정말 높을 것 같아요!



포린시스

국민들의 많은 참여로서
좋은 정치문화, 올바른
선거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투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선거방송 개시

★ 매 체: KT 올레TV 티브로드
★ 채널번호: 273 205
★ 개 시 일: 4월26일(수) 5월1일(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 1차: 정치분야
4월 23일(일) 20:00~22:00
★ 2차: 경제분야
4월 28일(금) 20:00~22:00
★ 3차: 사회분야
5월 2일(화) 20:00~22:00

제19대 대통령선거 특별전시

★ 전시명: 선거, 대한민국을 만든다.
★ 기 간: 4월17일(월)~5월17일(수) 4월17일(월)~6월30일(금)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야외 및 세종이야기 대통령기록관 기획전시실
★ 주 최: 중앙위원회 중앙·세종시위원회·대통령기록관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blog
블로그



posts
포스트



f
페이스북



t
트위터



k
카카오스토리



i
인스타그램





모바일로 만나는
SNS 매거진 NO. 20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